

고린도전서 1장

척 스미스 목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는 특권과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 배우는 시간을 갖고져 모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오늘 저녁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움직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오늘 밤 주님께로부터 받게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이 예배,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행함을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바울에 의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18장에 회당장 중의 한사람인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에 소스데네라고 이름 하는 또 다른 회당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서 고소했고, 로마인 판사, 갈리오가 그 고소를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그것이 로마법에 저촉된 문제거나 어떤 행동이면, 내가 너희를 들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언어와 종교적 개념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는 무리에 의해 구타를 당했지만, 로마인 판사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그들과 더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거한지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식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고, 바울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당파로 나눈 것에 대해 그들에게 썼습니다. 또 거기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공중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에 관한 그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썼는데, 근본적으로 바르게하기 위한 사도서신으로써, 바울에게 알려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장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에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 이름이 1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소스데네로서 그는 바울을 대적하여 갈리오 앞에 고소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은 소스데네인지는 추측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같은 소스데네라면, 한때 사도바울에게 복음의 적이였었는데 지금은 바울과 동반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서 함께 그들을 연합시키십니다. 주님은 결속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번 전혀 상반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하나가 되게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보통 그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을 자에게 쓰고, 그 다음에 인사말과 그 후에 감사의 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네 가지 요소들로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을 썼으며,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인사말과 그 다음 감사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시대에 편지 쓰는 전형적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쓰는 사람을 소개 하는데 바울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머리를 굽이면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꼭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인지를 당신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는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내가 먼저 언급한 것같이 만일 같은 소스데네라면,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한때 원수였던 사람이 지금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열 구절에 바울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가리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만 빼고 매 구절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주님께 의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의해 풍족해 졌습니다. 그러니 여기 기본 소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중심이 된 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라고 말하고 쓴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첫 열 구절 안에 주님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이 말은 hagios로 거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주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하여진, 또는 다른 말로, 구별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사용된 그릇들은 모두 거룩하여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전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그릇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하기 위해 구별된 것이 “거룩하여지고” 란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그의 교회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런 다음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카톨릭 교회에는 성인이 되는데 엄격한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는 동안 특별한 삶을 살아야하고 죽은 후에는 당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합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게 기도했고, 당신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증언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 때 그들은 당신을 성인으로 교회에 발표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니 아무도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도(성인)라 부르십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교회가 성인의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이 나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보시는 그 사실만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3.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좃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헬라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말 그 자체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shalom*(shalom)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들의 일상 인사말인 은혜와 히브리인들의 일상 인사말인 *shalom*을 합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항상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는 한번도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나의 크리스천 삶의 수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의 크리스천으로써의 삶은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었습니다. 내가 기대에 달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투쟁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해 지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까지 나의 크리스천 삶은 투쟁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나는 그 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안에서 쉬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인정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 그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는 그분의 직함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하고 말할 때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표시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직함입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무관하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와 복합 이름 중 하나인 *여호수아(Yehowshuwa)*이며,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Yehowshuwa)*,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여호와와는 구원이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는 메시아, 곧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헬라어 *Christos*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Mashiyach*,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Mashiyach)*,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부었고,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실 분, 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Christos)*,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심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 예수 (그분의 이름, 여호와와 구원이시라) 그리고 *Mashiyach*, 그분의 직함으로 메시야이십니다.

4.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편지 초반의 넷째부분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와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 . . 에 풍족하므로, (아, 내가 나의 삶을 돌아 볼 때에, 나는 진정으로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풍족했고, 나의 삶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모두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된 것이지 너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성령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여러분 안에 확고히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와 함께 증거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고하게 합니다.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성령의 은사들을 잘못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말했지만,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용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 쓰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용하는 것을 고치도록 써서 우리로 성령의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2장과 14장에 가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나 그들은 은사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여러

시대를 통한 모든 교회들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가 항상 주님이 언제든 재림하신다는 기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대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대하면서 살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라 함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 때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이 그의 첫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제(fellowship)란 말은 헬라어 *Koinonia*로써 실지로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Koinonia* 와 똑 같은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친구관계보다 훨씬 깊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때로 영적친교(communion)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종종 교제(fellowship)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one)로 번역됩니다. 일치, 단일, 친교, 교제, 이 모두를 다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아들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교제의 개념은 공통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소유(*Koinonia*)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친교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Koinonia*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편지 서문에,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들에게 인사말과 감사에 대해 썼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만든 문제들에 대해 쓰기 시작합니다.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을 위한 그의 간청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러한 분열과 당파들을 만들지 말고 연합하기를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 바울은 이러한 당파들은 육신적임을 표한다고 그들에게 말 합니다. 그것들은 육적 삶의 모습들이며 성령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합시키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보지 못 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알리려하다 큰 다툼을 하고, 그들을 제명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단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견해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와 동의할 것을 강요합니다.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당연히 믿음의 어떤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 즉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교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하고도 뚜렷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지만, 추측을 동반하거나 의견을 포함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추측과 의견을 수반하는 부분들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뚜렷하거나 확실치 않는 부분들을 보려는 경향이 있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나는 단지 미소만 짓습니다. 그는 이것이 맞는다면 당신이 아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글쎄, 나는 모릅니다. 그것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의견을 요구합니다. 나의 의견은 사실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아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말씀의 확실한 가르침이 있다면 당신을 관찮습니다. 만약 당신이 추측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지 그것은 추측이라고 말하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어떤 것에 대해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나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꼭 성령의 감동됨이 아니며, 단지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당신의 의견과 생각으로만 두십시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당신의 생각과 동의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분열을 갖지 말기를 권하고 간청합니다.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분열을 글로에의 가족 중에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분쟁은 잘못되게 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 진짜 다툼이 시작됩니다.)

12.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러한 분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과 동의합니다. 글쎄, 나는 게바와 동의 합니다. 나는 아볼로와 동의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당파들로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요. 나는 장로교인이요. 나는 성공회원이요. 나는 침례교인이요.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안에서 종파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파를 둘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나사렛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담을 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듭니다. 당신이 루터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리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보기보다는 부분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교를 축복하셔서 부흥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은 침례교인들이고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세! 그리스도의 몸이 증대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다소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더 나쁜게는 종종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지킵니다. 언제든지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났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교파로 갈려고 한다면, 비참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교파들로 바뀌는 시작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다음 그는 말하길, **14.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나는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묻기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왜 세례를 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나는 즉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들은 어떤 이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경우 곧바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중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기까지는 실제로 구원 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대답에 관심이 없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세례를 즉시 주지 않으면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즉각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합리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는 보통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썼던 이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단지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테바나 집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세례가 중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모독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왜 교파가 있는지 이해합니다. 교파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방법으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예식적 교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성격과 짜임새를 갖고 있기에 그러한 예배가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식적 교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들은 매우 감성적인 환경에서만 하나님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침과 소리지름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만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감정적 경험을 가지며 그들의 감정을 내뽐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카리스마적이고 오순절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흠뻑 침례를 받아야만 하고 물 뿌림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옳아야 하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를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에게 말하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인들에게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은 헬라인의 생각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개념, 그것은 헬라인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9.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쓰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된 것은, 그들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장미를 쥐고 그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의 아름다운 질은 색깔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코에 갖다 대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그들은 꽃잎의 대칭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봅니다. 그들은, 아!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 멍청이 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신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눈의 신경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초에 18개의 형상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동을 일으키는 젤리 같은 투명한 것으로 당신의 뇌로 보내지고

당신은 이 동작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1초에 18개의 형상들이 뇌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색깔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디자인이고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안구 안에 두고 작은 열 개의 근육을 붙여서 그것들이 앞, 뒤,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수백만년을 통한 우발적인 환경의 우연의 사건들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당신의 눈을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벌레가 분비물에서 나와 햇빛으로 나왔고 그의 앞 쪽의 등위에 얼룩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아직 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얼룩은 서서히 오랜 기간을 통해 점차적으로 진화되어 변화되었습니다. 산호나 조개껍질 등은 서로 스쳐 상처를 내어서 혹이나 피부 경결로 변하여 그 아랫 부분의 침식을 날아 궁극적으로 다리가 되었고 그 불도마뱀은 이제 볼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나는 더 이상 만화책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진화론 책을 읽습니다.

21.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묻기를, 누가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인간이 만든 종교의 문제 중 한 가지는 지상에서 시작하여 무한, 즉 무한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추구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유한의 인간은 무한의 하나님을 결코 달지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한의 하나님께서는 쉽게 인간에게 닿을 수 있으십니다. 기독교와 이 세상 여러 종교의 차이점은 이 세상의 종교는 유한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무한의 하나님께서 유한의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고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것을 전함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 그분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하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나 탐색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억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구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고 이룩하실 메시아의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명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동안은 더 이상의 육체적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들을 것입니다. 병어리가 찬양을 부를 것이며 절름발이가 뛰며 걸을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동안은 그들의 검들을 쟁기로 사용할 것이고 그들의 창들을 나무치는 갈고리로 그리고 더 이상 전쟁에 관해 연구치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아래에서는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아직 찾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다른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 의해 멸시 당하실 것이고 거절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애통과 함께 하고 비통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상함을 입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과를 인하여 찢김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죽으심으로 죄인들 가운데 세어 넣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죄과를 그분 위에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뚫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다른 예언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 차이점들을 화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멸시 당하심과 배반당하심, 그분의 죽음, 고통 등을 말했던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을 영적으로 해석했으며, 그들은 단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왕국과 통치만을 말했던 것만을 붙잡고 영적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건축자들에 의해 거절 당하셨고, 멸시 당하셨으며, 버린바 되셨으며, 오직 죄의 용서함은 십자가를 통한 통함임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그분 위에 내려 놓으셨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키 위한 의로운 기초로 십자가를 통하여만 있다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서 군림하셔야 하기에 인간에 의해 거절당하신 십자가의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것은 어떤 이를 위해서 다른 이가 죽는다는 생각,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독선적이고 정욕적인 우상 신들의 개념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고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25.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기에 많은 교수들이 없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 그분은 그들 위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순전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여 어린아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나는 나의 손자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갖는 갖가지 갈등 없이 너무나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깊고도 의미 있는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함.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단순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흥미로운 계획은 단지 순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평범하고 순전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만약 내가 어떤 박사 학위를 여러 개를 가진 훌륭한 학자였다고 가장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인 것을 모르느냐고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 참 좋죠. 아,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원생! 아! 그 훌륭한 사람, 그 사람 놀랍지 않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순전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고기를 잡으러 도로 갔을 때,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해변 가에서, 뭐 좀 잡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반대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물은 큰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물이 너무나 무거워 그것을 배 위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물고기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음을 보았을 때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물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당신은 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뿐임을. 그것은 인간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솜씨도 아닙니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온 그 뛰어난 사람들도 놀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그분은 지혜십니다. 그분은 의로움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함이십니다. 그분은 구속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31.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랑 하려면 주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을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며,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주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